

# 문해력 관점에서 본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 개선 방향

A Direction for Improvement for the Korean Language Section of the Civil Service Recruitment Exam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cy

홍지호\*\*

**국문요약**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의 문항은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관련 문항과 호환성이 부족하다. 호환성 부족의 결정적 원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문해력 평가 여부에 있다.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은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적으로 실질적 문해력을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어 시험을 실질적 문해력 평가 시험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어문 규정이나 한자 표기와 같은 국어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어휘력 평가 문항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의 출제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이해능력 평가 문항을 줄이고 대신 추론능력과 비판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실질적 문해력이란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영역 중 언어논리영역의 문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적절한 문항을 개발한다면,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을 실질적 문해력 평가 과목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 민간 기업 채용시험과의 호환성, 실질적 문해력,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공직적격성평가의 언어논리영역

- 차례**
1. 도입
  2.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 문항 분석
  3.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 문항 분석
  4.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 개선 방향
  5. 결론

## 1. 도입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그 감소폭은 매우 큰 편이다. 2021년에는 응시 인원이 156,311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78,407명으로 감소한 것이다.<sup>1</sup>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매력이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매력 하락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연구원 춘계학술대회 “한국 공적 시험의 문화사: 국어 관련 공적 시험의 문제점 검토와 개선안 모색”의 기획 주제 중 하나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 당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 개선에 공감하면서 함께 논의해 주신 선생님들과 이 논문의 초고를 검토하고 심사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1 인사혁신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현황」 및 「2021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현황」,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시험통계/자료실’ (<https://www.gosi.kr/cop/bbs/GosiGraph05.do>)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최근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공무원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망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민간 기업 채용시험과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간 기업 채용시험을 준비할 때 쌓은 역량을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었다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는 한국사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한국사가 공통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sup>3</sup> 민간 기업 채용시험을 준비하다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 기업 채용시험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sup>4</sup> 이러한 전제에 따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통과목 중의 하나인 '국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공기업은 비롯하여 민간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용시험은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직무능력'이란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은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력이다. 그렇다면 국어 과목을 통해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하는 직무능력은 무엇일까? 전자는 아니다. 그것은 행정학 등의 전문 과목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국어 과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어 과목을 통해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국어 과목이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실질적 문해력'의 의미는,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5</sup> '글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어왔지만, 공무원 채용시험은 그런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만 고려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 기업 채용시험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중 다른 한 분 역시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 기업 채용시험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근거는 '공무원과 기업의 직원을 활용하는 방향과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물론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도 민간 기업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채용시험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민간 기업의 직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애국심 등의 공적 소양은 필기시험이 아닌 면접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실질적 문해력'이라는 개념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기능적 문해력'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1956년부터 문해력을 '최소 문해력'과 '기능적 문해력'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최소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쓰는 기초 능력'을, '기능적 문해력'이란 '글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는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 문해력'으로 규정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문해력의 씨앗을 키워라! 문해력 높이는 법!」, 『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 교육부, 2022. 6.28. <https://if-blog.tistory.com/13368>).

2 인사혁신처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민·관 보수 수준 실태 조사'에 근거하면 2022년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2.3%이고, 일반 행정직은 민간 대비 74.6%이다(백승윤, 「공무원 임금 민간 대비 82% ... 20년 만 최저치」, 『참여와 혁신』, 2023.04.05.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8>).

3 이종구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LG, SK 등 몇몇 민간 기업에서는 한국사를 채용시험에 포함시킨 적이 있지만 2020년 이전에 모두 폐지했다. 반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한국사가 국어, 영어와 더불어 공통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이종구, 「한국 대기업 필기전형 방식의 사적 전개 과정과 시대별 특징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취업진로연구』 11, 한국취업진로학회, 2021, 80쪽,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_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배포용)」,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통계/자료실' <https://www.gosi.kr/cop/bbs/GosiGraph05.do>).

4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민간 기업 채용 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시험에 대해 제기되었던 주요 비판 중의 하나는 바로 '갈라파고스화'였다. 즉, 공무원 채용시험은 여타의 채용시험과 상당히 괴리된 내용의 시험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를 위해 쌓은 역량을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없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능력'이란 글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항을 추론하거나 특정 견해를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어 과목이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추론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과목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앞으로 살펴볼겠지만,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관련 문항은 대부분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세계경제포럼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인지역량들이다.<sup>6</sup>

순위	인지역량	순위	인지역량
1	분석적 사고	6	기술 활용 능력
2	창의적 사고	7	신뢰성과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3	탄력성, 유연성, 민첩성	8	공감 및 적극적 경청
4	동기 부여 및 자기 인식	9	리더십 및 사회적 영향력
5	호기심 및 평생 학습	10	품질관리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분석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가 가장 중요한 인지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의 필요조건은 바로 분석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비판의 대상에 대해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데 추론적 사고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 역시 비판적 사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지금 우리의 맥락이나 일자리의 맥락에서 창의적 사고란 예술적인 영역에서의 창의적 사고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창의적 사고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쓸모 있고 새로운 해법을 산출하는 사고

이다. 쓸모 있고 새로운 해법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상황 및 기존의 해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적 해법이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비판적 사고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론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국어 과목을 개선하게 된다면,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4년간 시행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은 직무능력으로서의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2장). 다음으로 공기업 채용시험과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관련 문항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을 실질적 문해력 평가 과목으로 개선할 경우 공기업 채용시험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3장). 다음으로, 실질적 문해력 평가 과목으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5급 및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언어논리영역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4장).

## 2.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 문항 분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문해력 평가 차원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 과목의 문항들을 분석하여 국어 과목이 어떠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단 최근 4년간 시행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6 『The Future of Job Report』, 세계경제포럼, 2023, 38쪽.  
<http://weforum.org>

과목에 포함된 문항들을 ‘국어 지식 평가 문항’, ‘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 ‘비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의 세 범주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세 범주 중 국어 지식 평가 문항에는 문법,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 어휘력, 한자어 및 한자 표기 문항 등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다.

[2021년 9급 공채 국어 5번 문항] ㉠, ㉡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 지은 것은?

용언의 불규칙활용은 크게 ㉠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   |               |                |
|---|---------------|----------------|
|   | ㉠             | ㉡              |
| ① | 걸음이 <u>빠름</u> | 꽃이 <u>노랗</u>   |
| ② | 잔치를 <u>치름</u> | 공부를 <u>핥</u>   |
| ③ | 라면이 <u>불음</u> | 합격을 <u>바랄</u>  |
| ④ | 우물물을 <u>푼</u> | 목적지에 <u>이름</u> |

[2024년 9급 공채 국어 3번 문항]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로 쓰인 것은?

- ① 그 친구는 허구헌 날 놀러만 다닌다.
- ② 닭을 통째로 구우니까 더 먹음직스럽다.
- ③ 발을 잘못 디더서 하마트면 넘어질 뻔했다.
- ④ 언니가 허리가 잘룩하게 들어간 코트를 입었다.

[2024년 9급 공채 국어 9번 문항] (가)~(다)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실을 (가) 한 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그는 (나) 이 잦아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잃었다.
-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 (다) 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度外視 | 食言  | 矛盾  |
| ② | 度外視 | 添言  | 腹案  |
| ③ | 白眼視 | 食言  | 矛盾  |
| ④ | 白眼視 | 添言  | 腹案  |

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에는 고전 시가, 현대 시, 고전 소설, 현대 소설 등 문학작품을 지문으로 활용한 문항을 포함시켰고, 그 외의 문항들은 모두 비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시험구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지방직 9급 공채 시험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국어지식	6	6	5	6	6	6	5
문학독해력	4	4	3	4	5	5	4
비문학독해력	10	10	12	10	9	9	11
합계	20	20	20	20	20	20	20

이 결과를 살펴보면, 국어 지식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체 문항의 30% 안팎을, 문학 독해력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은 20% 안팎을, 비문학 독해력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은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이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문항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으로 분류한 문항 중 상당수는 국문학적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항은 사실상 고전 시가에 대한 지식 소유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9급 공채 국어 15번 문항]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녁시라도 님은 흐디 너져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히 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자의 결백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큰 숫자를 활용하여 입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국문학적 지식이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시나 소설을 독해하는 능력도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는 거리가 있는 듯이 보인다.<sup>7</sup>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는 문학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공무원의 직무를 고려하거나 민간 기업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고려하면 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을 공무원 채용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문법,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 어휘력, 한자어 및 한자 표기 문항 등 국어 지식 평가 범주에 포함된 문항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단적으로 말하여, 이 문항들은 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문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서는 추론능력이나 비판능력 등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문법이나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관한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어휘력이 매우 부족할 경우에는 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추론하거나 비판하는 작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국어 지식 평가 문항도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국어 지식 평가 문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험생은 추론능력이나 비판능력을 비롯하여 실질적 문해력을 위해 필요한 국어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즉 실질적 문해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게 되면, 국어 지식 소유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국어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추론능력이나 비판능력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어 지식 평가 문항을 공무원 채용시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사실상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관한 지식이나 한자어 등 어휘에 관한 지식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지식이다. 예를 들어, 업무 자료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금방 찾아볼 수 있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맞춤법을 비롯한 어문 규정을 어기게 될 경우에도 쉽게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론능력이나 비판능력은 쉽게 교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최근 민간 기업의 경우 채용시험에서 어휘력이나 어문 규정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어문 규정 자체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업은 전혀 없다. 반면에 추론능력과 비판능력의 소유 여부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어 지식 평가 문항을 공무원 채용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제 9급 공무원 국어 과목의 전체 문항 중 5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비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문해력은 두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기초적 문해력으로서 국어 지식에 기반해 글을 구성하고 있는

7 물론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추론적 사고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수 있다면 실질적 문해력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에서 그러한 문항은 찾아볼 수 없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거나 글에 담겨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문해력으로서 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실질적 문해력이란 글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문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해력			
기초적문해력		실질적문해력	
국어 지식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비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들을 이해능력 평가, 추론능력 평가, 비판능력 평가 문항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해능력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문두를 가진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글에서 (가)~(다)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이러한 문항들을 이해능력 평가 문항에 포함시킨 이유는, 새로운 사항을 추론하거나 지문의 내용을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론능력 평가 문항에는 ‘추론’이라는 단어가 문두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문항과 더불어 지문의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사항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포함시켰고, 비판능력 평가 문항에는 글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지방직 9급 공채 시험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이해능력	9	10	11	4	8	7	7
추론능력	1	0	1	5	1	2	3
비판능력	0	0	0	1	0	0	1
합계	10	10	12	10	9	9	11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2023년 하반기에 실시된 지방직 9급 공채 시험 이후로 공무원 국어 과목에 추론능력이나 비판능력 평가 문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어 과목의 전체 문항이 20문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문항의 난도를 고려할 때 추론능력이나 비판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인지도의 심스럽다. 예를 들어, 비판능력 평가 문항으로 분류한 다음 문항을 살펴보자.

[2023년 지방직 9급 국어 11번 문항]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지: 최근 국민 건강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방되거나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운용: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은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재운: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① 은지는 첫 번째 발언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윤용은 은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 ③ 은지는 두 번째 발언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재윤은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이 문항은 대화를 통해 제시된 진술들의 맥락적 역할 및 논리적 관계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해능력 평가 문항만큼 낮은 난도의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추론 문항에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추론 문항을 살펴보자.

[2024년 9급 공채 국어 20번 문항]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완전 채식주의자는 이들 모두를 섭취하지 않으며, 페스코 채식주의자는 고기는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은 먹으며, 유제품과 달걀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섭취한다. 남은 세 가지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되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이들의 명칭은 라틴어의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lacto)’와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ovo)’를 사용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다. 락토 채식주의자는 (가) 먹지 않으며, 오보 채식주의자는 (나) 먹지 않는다.

- ① (가):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나):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먹지만 유제품은
- ② (가):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나):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 ③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나):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먹지만 달걀은
- ④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나):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이 문항은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추론능력 평가 문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난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처럼 추론능력 평가 문항에 포함된 문항 중 난도가 높은 문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어떤 문항은 이해능력 평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추론능력과 비판능력 범주로 분류한 문항들도 실질적 문해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문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시행되고 있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3.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시험 문항 분석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의 채용시험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는 국어 과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출제되고 있는 문항을 분석해 볼 때,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문항들이 포함된 시험 과목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어휘력이나 비문학 독해 등의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포함된 시험 과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과목들에서 평가하는 국어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3-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공기업의 직업 기초능력 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하면, 직무능력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성되고, 이 중 직업기초능력은 총 10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10개 부문 중 공무원 국어 과목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능력’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의사소통능력 부문의 하위능력 및 그에 대한 정의이다.<sup>8</sup>

하위능력	정의
문서이해능력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문서작성능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기가 뜻한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
경청능력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의사표현능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기가 뜻한바를 말로 나타내는 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다섯 가지 하위 능력 중 기초외국어능력은 국어 과목과는 관련이 없다.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중 다음과 같은 문항들도 국어 과목의 문항들과는 거리가 있다.<sup>9</sup> 이 문항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지식을 묻고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이다.

**[의사표현능력]**

다음은 기획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당신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2)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① 설득 화법                      ② 칭찬 화법
- ③ ‘YES/BUT’ 화법            ④ 회유 화법
- ⑤ 샌드위치 화법

**[경청능력]**

다음 예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경청에 대한 명언이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경청은 기술이 아니다. 경청은 절제며 (     )이다. 경청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고, 남들에게 배울 것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① 열정    ② 겸손    ③ 효율    ④ 정직    ⑤ 능률

**[문서작성능력]**

다음 중 기안서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 Ⓐ 어떤 행위의 발생을 위한 발의 양식
- Ⓑ 상사로부터 허락을 구하고자 결재를 받는 것
- Ⓒ 주로 물품 구매와 같이 기존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역할
- Ⓓ 어떤 계약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결재문서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그러나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문서작성능력’으로 분류된 문항들 중에는 글이나 대화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두를 포함하고 있는 문항들이 그것이다.

- **[경청능력]** 귀하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유연 근무제 제공 및 활용 실태 설문조사’에 대한 보도를 TV 뉴스를 통해 접하였다. 그 보도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귀하와 동료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의사표현능력]** 아래는 의사소통에 대한 강연이다.

8 NCS에 따르면, 직업기초능력의 하위 항목에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가 포함된다. 이 중 ‘문제해결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일부도 실질적 문해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의사소통능력 및 하위능력에 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go.kr) 및 신선경의 정리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의사소통능력 교수자용 가이드북』 및 「구조보기」(https://www.ncs.go.kr/th03/TH0302List.do?dirSeq=121), 신선경,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사고와 표현』 9, 2016, 49쪽.

9 이 논문에서 예시로 사용하는 NCS의 문항들은 모두 국가직무능력표준(ncs.go.kr)의 ‘의사소통능력 문항(160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중 강연에 참석한 직원 A~D의 대화 중 강연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 [의사표현능력] △△회사의 홍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귀하가 다음 공문서를 요약하여 부장에게 보고하고자 한다. 이때 보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문서작성능력]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올바른 것은 고르면?
- [문서작성능력]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곳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이러한 문항들 중 ‘경청능력’과 ‘의사표현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비문학 독해력 평가 중 이해능력평가 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서작성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어문 규정이나 맞춤법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국어 지식 평가 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청능력’과 ‘의사표현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일부는 기초적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이해능력’ 부문에도 문단배열, 주제 파악, 내용구성 등 이해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서이해능력’ 부문에 이해능력뿐만 아니라 추론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문항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물음들로 구성된 문항들이 그 사례이다.

- [문서이해능력]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문서이해능력] 다음은 ‘잘씨저분필’에 대한 어느 뉴스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아래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잘씨저분필’의 특징이 아닌 것은?
- [문서이해능력] 일본에서 유학했던 최영재 씨는 오랜 만에 일본 □□대학 교수를 찾아가기로 했다. 다음 메일 내용을 읽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단, 공항에서 대학 정문까지 가는 루트는 지도에 나온 방법에 한정한다.)
- [문서이해능력] 다음 중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항들은 모두 일정 길이의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과 추론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즉 추론능력 평가 문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의사소통 관련 지식 평가 문항들을 제외하고 국어 관련 문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만 고려하면 이러한 추론능력 평가 문항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채용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관련 문항들은 기초적 문해력뿐만 아니라 실질적 문해력도 평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3-2.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도 국어 과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sup>10</sup> 그러나 국어 관련 문항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실시하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어휘, 문단 배열, 비문학 독해 등 국어 능력 관련 문항이 ‘언어논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언어논리’ 영역은 폐지되고 현재는 ‘추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추리’ 영역은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도형추리나 도식추리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 즉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새로운 사항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추리 문항, 독해능력 평가 문항, 어휘력 평가 문항 등이 국어 관련 문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삼성을 포함한 몇몇 민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성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관련 과목과 그 문항 수를 정리한 표이다.<sup>11</sup>

10 해커스 취업교육연구소, 『2024 해커스 20대기업 인적성 통합 기본서 최신기출유형+실전문제』 2024 및 에듀윌 취업연구소, 『2024 최신판 에듀윌 취업 20대기업 온·오프라인 인적성 통합 기본서』, 2023 참조.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이 두 수험서에서 가져온 것이다.

11 위의 두 책 참조. 사실 민간 기업들은 채용시험의 문항들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험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기업	국어 관련 과목	문항 수
삼성	추리	30
현대자동차	언어이해/논리판단	25 / 15
LG	언어이해/언어추리	15 / 15
SK	언어	20
롯데	언어적사고	20
두산	언어논리/언어유창성	30 / 30

국어 관련 문항들을 어문 규정, 어휘력, 문학독해, 비문학독해, 언어추리 범주로 나누고 이러한 과목들에 어떠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	어문 규정	어휘력	문학독해	비문학독해	언어추리
삼성		○		○	○
현대자동차				○	○
LG				○	○
SK				○	○
롯데		○		○	○
두산	○	○		○	○

이 표에 근거하면, 민간 기업에서는 문학 독해 능력은 직무능력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나 두산의 채용시험에 포함되는 어문 규정 문항은 공무원 채용시험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어문 규정에 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출제되고 있지 않다. 또한 다음과 같이 문법 용어를 사용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고 있다.

**[2024년 9급 공채 국어 6번 문항]**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은?

어떤 구성을 두 요소로만 쪼개었을 때, 그 두 요소를 직접구성요소라 한다. 직접구성요소가 어근과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 한다.

① 지우개 - 새파랗다      ② 조각배 - 드높이다  
 ③ 짓밟다 - 저녁노을      ④ 꽃사과 - 돌아가다

게다가 최근에는 어문 규정 문항이 아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LG나 현대자동차의 채용시험의 경우 2020년 이전에는 어문 규정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 이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역적 어휘를 사용한 어휘력 평가 문항은 출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자 표기 능력 문항은 출제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어휘력 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은 정도로 출제되고 있다.<sup>12</sup>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

그는 투자 사기를 당하여 사업 밑천을 몽땅 날렸다.

- 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며 웃음을 날리고 있다.
- ② 우리 삼촌은 한때 총무로서 명성을 날리던 감독이었다.
- ③ 김 대리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날린 자료를 복구하느라 바쁘다.
- ④ 날려 지은 탓인지 새 아파트임에도 벽에 금이 가서 빗물이 샌다.
- ⑤ 공사 후에도 날리는 석면 가루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됐다.

이러한 문항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휘력 평가 문항에 비해 매우 쉬운 수준이고 출제하고 있는 기업도 적은 편이다.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문학 독해력 평가 문항은 모든 기업에서 출제하고 있고 그 문항에는 추론능력과 비판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 **[비문학 독해 능력]**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비문학 독해 능력]** 다음 글 (가)와 (나)의 관계에 대한

<sup>12</sup> 이 문항은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안내하고 있는 수험서를 참조하였다. 해커스 취업교육연구소, 『해커스 GSAT 삼성직무적성검사 최신기출유형』, 2020 참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비문학 독해 능력]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를 고려하여 각 문단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비문학 독해 능력] 다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 [비문학 독해 능력] 다음 글이 범한 오류와 성격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한 문항들에 더하여, 모든 기업에서 논리적 사고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면서 별도의 과목을 통해 추론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민간 기업의 국어 관련 평가는 국어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 문해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 기업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에 실질적 문해력 평가를 위한 추론능력 평가 문항이나 비판능력 평가 문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4.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 개선 방향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현재 9급 공무원 국어 과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고, 이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과의 호환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론능력이나 비판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은 이미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공무원 채용시험 중에도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과

목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5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바로 그것이다. PSAT는 특정과목의 전문지식 소유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란 종합적 사고력이다. 이러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 시험은 2004년 외무고등고시에 처음 시행된 이래로 현재는 5급 공무원 채용시험, 7급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PSAT는 다음과 같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평가영역	평가능력
언어논리영역	글의 이해, 표현, 추론, 비판과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
자료해석영역	수치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계산, 분석과 정보추출 등의 능력
상황판단영역	상황의 이해, 추론 및 분석, 문제해결, 판단과 의사결정 등의 능력

이러한 세 영역 중 언어논리영역의 문항들을 참고한다면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논리영역은 실질적 문해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추론, 논리, 비판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언어논리영역의 평가항목들이다.<sup>14</sup>

평가항목	측정내용
이해	글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표현	글의 재료를 수집하여 개요를 구성하고 문단을 조직화하며 고쳐쓰기를 통해 글을 완성할 수 있는가?
추론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비판	글에 들어 있는 논증 구조를 분석하여 타당성, 일관성, 관련성 등의 기준에 의해 논증의 설득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평가 항목 중 추론능력과 비판능력 평가

13 중앙인사위원회, 『지식정부 제1장 공직적격성평가』, 2007, 8쪽.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내용은 모두 이 안에서 가져온 것이다.

14 위의 책, 14쪽

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다음은 추론능력과 비판능력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의 물음들이다.

**[추론능력]**

-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다음 글의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다음 글을 토대로 할 때 ㉠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능력]**

-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다음 갑과 을의 논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다음 글의 ㉠을 약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다음 글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항들은 추론능력과 비판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추론능력 평가항목의 물음들을 보면, 연역적 사고 능력, 숨은 전제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판능력 평가항목의 물음들을 보면, 글에 대한 분석적 사고 능력, 논쟁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근거에 따라 글의 내용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을 참고하여 국어 과목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한다면 국어 과목을 통해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한다면, PSAT 언어논리영역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국어 과목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5.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과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관련 문항들의 호환성은 매우 부족하다. 호환성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데 있다. 사회적으로 실질적 문해력을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을 실질적 문해력 평가 시험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문 규정이나 한자 표기와 같은 국어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어휘력 평가 문항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채용 시험에서 출제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이해능력 평가 문항을 줄이고 대신 추론능력과 비판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실질적 문해력이란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실질적 문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언어논리영역의 문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적절한 문항을 개발한다면,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을 실질적 문해력 평가 과목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대한민국 교육부, 「문해력의 씨앗을 키워라! 문해력 높이는 법」,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2.06.28. <https://if-blog.tistory.com/13368>
- 백승윤, 「공무원 임금민간대비82%... 20년만 최저치」, 『참여와혁신』, 2023.04.05.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8>
- 세계경제포럼, 『The Future of Job Report』, 세계경제포럼, 2023. <http://weforum.org>
- 신선경,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사고와표현』9, 2016.
- 에듀윌 취업연구소, 『2024 최신판 에듀윌 취업 20대기업 온·오프라인 인적성 통합 기본서』, 2023.
- 이종구, 「한국 대기업 필기전형 방식의 사적 전개 과정과 시대별 특징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취업진로연구』11, 한국취업진로학회, 2021.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배포용)」, <https://www.gosi.kr/cop/bbs/GosiGraph05.do>
- \_\_\_\_\_,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현황」, <https://www.gosi.kr/cop/bbs/GosiGraph05.do>
- \_\_\_\_\_, 「2021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현황」, <https://www.gosi.kr/cop/bbs/GosiGraph05.do>
- 중앙인사위원회, 『지식정부 제1장 : 공직적격성평가』, 2007.
- 한국산업인력공단, 『의사소통능력 교수자용 가이드북』, <https://www.ncs.go.kr/th03/TH0302List.do?dirSeq=121>
- 해커스 취업교육연구소, 『해커스 GSAT 삼성적무적성검사 최신기출유형』, 2020.
- \_\_\_\_\_, 『2024 해커스 20대기업 인적성 통합 기본서 최신기출유형+실전문제』, 2024.

## Abstract

## A Direction for Improvement for the Korean Language Section of the Civil Service Recruitment Exam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cy

Hong, Ji-Ho | Sungkyunkwan University

The Korean language test items for civil service recruitment lack compatibility with Korean language-related questions found in the recruitment tests of public or private enterprises. The decisive reason for this lack of compatibility lies in the assessment of practical literacy skills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While recruitment tests for public or private enterprises evaluate practical literacy skills, the Korean language test for civil service recruitment does not. Considering that practical literacy skills are evaluated as important competencies in modern tim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Korean language test for civil service recruitment into an assessment of practical literacy skills. To achieve this improvement, it is necessary to first avoid questions that assess language knowledge such as grammar rules or Chinese character usage.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minimize vocabulary assessment questions. This aligns with the direction of recruitment test design for public or private enterprises. Secondly, the number of questions assessing understanding abilities should be reduced, and instead, the weight of questions assessing inference and critical thinking abilities should be increased. Practical literacy involves the ability to infer and think critically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of a text. To facilitate this improvement, it is advisable to refer to the Language and Logic section of the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which already assesses practical literacy skills. Through this approach, by developing appropriate questions, it should be possible to transform the Korean language section of civil service recruitment exam into one that evaluates practical literacy skills.

**Keywords** Korean Language Section of Civil Service Recruitment Exam, Compatibility with Private Sector Recruitment Exams, Practical Literacy, Inferential Thinking, Critical Thinking, Language and Logic Section of PSAT

이 논문은 2024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6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